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1994-2004)

제 495 호 불기 2548년 10월 13일 수요일

3국 3거사의 수행현장 : 중국 방 거사

www.buddhanews.com

B9

불교의 생활화

‘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

# 호북성 의성 방거동굴 30평규모 2개 석실엔 ‘버림’으로 깨달은 방 거사 열기 지금도



◀방거동굴을 관리하는 후명옥 보살이 동굴의 유래와 방 거사 가족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호북성 의성 방거촌 아산에 숨어있는 방거동굴 내부 모습. 방 거사 가족은 마조 스님을 친견한 후 전재산을 동정호에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며 수행했다.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비행기, 버스, 택시 등 현대화된 교통수단을 모두 동원해도 며칠이 걸렸다. 중국의 재가성현 방 거사(龐居士)를 만나러 가는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의 구도행과 같았다.

중국 호북성(湖北省) 성도 무한(武漢)에서 의성(宜城)까지 고속버스로 꼬박 6시간. 택시를 임대해 물어 물어 겨우 방 거사가 수행했다는 방거촌(龐居士) 방거동에 도착했다.

## 주민 3월 3일 동굴찾아 행운 기원

방거동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 왕집진(王集鎮)에 가서야 제대로 찾아왔음을 알게 됐다. 중국땅 어디에서도 방 거사는 물론 방거동에 대해 아는 이가 거의 없어 헛걸음하는 것은 아닌지, 가는 길 내내 불안이 떨어야 했다. 광활한 중국 땅을 헤매고 나선 것은 인도 유마힐 거사, 한국의 부설 거사와 함께 세계 3대 거사로 추앙받는 방 거사를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절도사 우적이 쓴 <쌍 거사 어록>에 따르면 방 거사는 중국 당나라 때 호남성 형

주사람으로 이름은 은(隱)이고 자는 도현(道玄)이다. 아버지가 형양의 태수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친구 단하와 과거 시험을 보러가다가 주막에서 스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선관장(選官場)에서 관료가 되기보다 선불장(選佛場)에서 부처 되는 것이 으뜸이다”는 스님 말에 부처되기를 발원하고 당대의 선지식인 석두, 마조 스님 문하로 들어간다. 여기서 친구 단하는 훗날 목불을 태워 사리를 찾던 단하 천연(丹靄天然) 선사이다.

마조 스님 밑에서 정진하던 방 거사는 “재물은 허망하여 도 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동정호(洞庭湖)에 버렸다. 어떤 이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버리냐”고 방 거사에게 묻자 “재물은 탐욕을 부르는 것이며, 진정한 보시는 탐욕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답한다.

## 추모 사찰 문화혁명때 폐사 당해

이때 방 거사에게는 이미 부인과 일남 일녀의 가족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이를 잊지 않았다.

그 후 방 거사 식구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짠 시중에 팔아 생활했다.

방 거사가 호북성 방거촌에서 수행하던 때는 호남성 동정호에 재산을 버린 후다. 방거촌에는 방거사가 은거했던 ‘은사거(隱士居)’라는 동굴이 남아있다. 지역민들이 ‘방거동’으로 부르는 이 동굴은 마을에서 멀지않게 떨어져있는 아산 7부 능선에 자리해 있다. 동굴 입구엔 ‘은사거’란 명패와 7연 2구의 글이 주련마냥 돌에 새겨져 있다.

산중일월관래왕(山中日月關來往) 산중의 해와 달은 한가로이 오가고 동구연하자고금(洞口煙霞自古今) 동구의 저녁 연기 예와 다름없구나

동굴은 30여 평 규모로 2개의 석실로 이루어졌다. 오른쪽 석실은 산 정상으로 연결됐고, 동굴 중앙에 불상과 방 거사 부부로 보이는 상이 모셔져 있다. 천연동굴



이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춘추전국시절 제갈량과 쌍벽을 이룬 방통도 이 동굴에서 공부했다고 전한다.

이런 연유로 방 거사가 방거동에 은거하게 됐을까. 동네사람들에 따르면 “당시는 나라가 혼란스런 시기여서 싸움을 피해 왔다”고 전한다.

또한 “지역에서 도인으로 추앙받았고, 훗날 출연히 남쪽으로 떠났다”고 한다. 재산을 호수에 버린 후여서 생활은 ‘무소유’ 자체였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대나무 그릇을 만들어 팔았을까’ 하는 마음에 동굴 밖을 둘러보니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동굴에서 내려다보이는 비옥한 대지에는 지역특산물인 목화, 땅콩, 옥수수 가 한창이다.

## “어리석음 없음이 진정한 좌선”

방 거사는 철저히 필요한 만큼만 생산 활동을 해서 그날그날을 자유롭게 살았다. <백장 청구(百丈淸規)>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의무가

강조된다면, 방 거사의 생활은 ‘수행에 걸림없도록 필요한 만큼 일한다’는 것이다. 동굴 원벽면에 청나라 때 세간 ‘유방백대(流芳百代)’란 비석이 있다. 동행한 병진 스님(진남 9월 중국 청따오에 한국 사찰 장안사 장건의 해석에 따르면 ‘방 거사를 추앙’ 하는 내용이라 한다.

이런 연유로 훗날 방거동에는 방거사 사찰 장안사 장건의 해석에 따르면 ‘방 거사를 추앙’ 하는 내용이라 한다. 이런 연유로 훗날 방거동에는 방거사 사찰 장안사 장건의 해석에 따르면 ‘방 거사를 추앙’ 하는 내용이라 한다.

‘방거촌 소학교’ 서기 호가보(胡家普·53) 씨에 따르면 ‘1949년 방거동 절

을 무너뜨려 목재를 가져다 소학교교들을 지었다’고 증언한다. 당시 커다란 불상이 사람들의 힘으로 넘어가지 않자 물소가 끌어 훼손했다는 것이다.

마을 중앙에 자리한 소학교에는 곳곳에 방거동 절의 유물이 남아있다. 아이들이 밟고 다니는 계단석 가운데 절에서 가져온 비석이 놓여있기도 했다. 학교 정문 양쪽엔 사찰에서 옮겨온 초석이 방치되어 있다. 호 씨는 “방거촌 지명이 방거사에서 유래했다”며 “지금도 음력 3월 3일이면 마을사람들이 방거동을 찾아 한해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거동굴에서 바라 본 방거촌 전경. 마을 곳곳에 방거사의 유적이 남아있다.

방거동은 절이 폐찰된 후 오랫동안 비어있었다. 10여 년 전 왕집진에 살던 후명옥(侯明玉·80) 보살이 동굴 앞에 작은 요사채를 지어 방거동을 지키고 있다. 후 보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와 사찰중창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방 거사는 마조 문하에 있는 많은 선승들과 교류하면서 수도 수행에 있어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 하지만 나는 순간의 고요를 즐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요 속에 본래의 내 모습이 드러난다. 탐욕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요,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이다.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계요, 잡념이 없음이 진정한 구도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인연따라 거리낌없이 사니 모두가 반야의 배를 탄다.”

## 가족 모두 넘지않고 열반

이렇듯 방 거사와 가족들은 얽매음이 유유자적하며 자유인으로 살았다. 그들의 마지막 열반모습은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방 거사가 딸 영조에게 죽을 시각인 정오가 되면 알려달라고 하자 영조는 “일식(日蝕이다)”며 방 거사를 집밖으로 불러내고 자기가 아버지 죽을 자리에 앉아 숨을 거둔다. 결국 방 거사는 딸의 장례를 치르고 7일만에 입적한다. 밭에서 일을 하던 아들이 아버지 소식을 듣고 팽이에 기대어 서서 죽자, 방 거사 부인은 아들을 화장한 후 좌탈한다.

시방의 모든 납사 함께 모여서 / 모두가 합이 없는 도를 배우니 / 이 곳은 부처 뽑은 과거장이라 / 마음이 공하니 급제하더라(十方同聚會 個個學無為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

젊은날 부처가 되겠다던 방 거사는 이렇듯 마음을 비우고 가족들과 함께 부처에 급제했던 것이다.

글·사진/중국 호북성=이준엽 기자

협찬=일산 장안사 중국 청도 본원



1949년 방거동 절을 무너뜨린 후 건립한 ‘방거촌 소학교’ (사진 위)와 소학교 내에 남아있는 방거사(龐居士)유적.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천년을 이어 가는 생명의 잠자리!!!

부모님께 활력을!!! 후손에게 가보를... 대를 이어 전하세요.

- 1인보로 - 값 4,000,000원
- 보급형보로 - 값 2,800,000원 (체적이 작은분)
- \* 보로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희망석 받식을 선물로 드립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망석이란?  
희망석(精魂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상품화한 것이 희망석입니다. 희망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 건강을 생각하는 희망석 찜질팩

그냥 사용해서도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이때 사용에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을 원하시는 분
- 야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리엔
- 운전할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망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체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지에 대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망석의 모든 찜질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희망석 찜질팩 44,000원  
희망석 찜질팩 66,000원  
희망석 찜질팩 38,000원

자원넷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곡빌딩 502호  
제품문의 전화: (02)3476-2335 www.jawonet.com